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성경: 예레미야 28장 10-17절

Tag:

10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빼앗아 꺾고

11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멩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12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13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멩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멩에들을 만들었느니라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15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렘28:10-17)

오늘 말씀에는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한다.

때는 바야흐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지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시드기야는 결국 11년간 다스리다가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당시 예레미야는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매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항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하였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짓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다. 왜냐면 더 달콤하고 자신들이 원하던 바였기 때문이다. 시드기야도 은근히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인 것을 아는데도, 설마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거짓 애국자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요, 매국노로 몰았다. 그들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였다.

당시 예언적 행동으로 예레미야는 소에게나 메우는 멍에를 만들어 어깨에 메고 다녔다. 그 의미는 바벨론이 지우는 멍에를 메고,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쟁하려고 하지 말라. 인명피해만 생기고, 결국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반역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왕실과 고관대작들은 바벨론에 가서 신하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이 영 없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하실 것이다. 이미 심판과 멸망은 예정된 것이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예언하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왕실과 성전과 제사 기물들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보다는 친근한 과거에 머물러 살기를 선택한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기득권, 재산, 토지, 추억, 문화 등을 버리지 못한다. 빼앗길 때까지, 빼앗기는 순간에도 불가항력인 줄 알면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드디어 28장에 하나냐라는 거짓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하나나도 예언적 행동을 사용하였다. 그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오더니 목에서 멍에를 벗겨서 그 멍에를 분질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좋아하였다. 안심이 되었다. 뭔가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그 예언은 거짓예언이었다. 이런 거짓 예언은 참 예언의 감동을 더럽힌다.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70년 이후에는 정금처럼 되어 돌아오리라는 굳은 결심을 와해시킨다.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포로 생활보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결국은 고달픈 포로생활 보다는 편안한 고향생활을 지속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매우 신앙심 깊고, 애국심 깊은 기도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물론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 하셨는데도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결코 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은 매국노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거짓을 믿게 되는 순간 가치관과 목표의식과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은 희미해지다가 결국 사라진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목을 맨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냥 세월을 허송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거짓 예언 중독현상이다.

거짓을 믿게 되는 순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

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정당하고 건강한 희생정신은 사라진다. 일확천금이 소망이 된다.

영똥하고 몰상식한 주장들이 정의가 되고, 영똥한 것이 선행이 되고, 선망이 되고, 선호가 된다. 말만 좋다. (위안부 동상, 일제 강제노동자 동상 등. 세월호 천막 5년이 지났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거짓말이 진실인척 하고, 나쁜 생각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당한 생각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말인줄 몰랐다고 둘러댄다. 무슨 말이든지 덤씩 받아들이거나 믿지 말고 팩트를 체크할 줄 알아야 한다.

주변에 몇몇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60~80만원인가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못한다고 한다. 일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텐데, 그 돈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일을 못한다고 한다. 내가 볼 땐 그냥 게으른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믿었던 가짜 뉴스가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유구무언이다. 아무리 캐고 조사해도 10원 한 장 받아서 챙긴 증거는 없다. 다만 추측과 진술 뿐이다. 그 모든 진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형사 재판에 증거도 없이 판결했다.

증거가 없으니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라는 해괴한 말들이 나온다. 털난 양심은 있었나 보다. 어떤 사람은 과거는 흘러갔으니 묻어두자고 한다. 역사에 맡기자고 한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침묵과 많이 닮았다. 이제라도 빨리 사면해 주어야 한다.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다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지난주는 어떤 못된 연예인이 여성 몰카를 카톡으로 돌려 보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걸 함께 보았던 동료 연예인은 그땐 그게 죄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생각하지 못

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나는 이 모든 사람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인생들은 너무 나약하고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아무리 법관이 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모두 참회해야 한다. 왜냐면 비로소 진실 앞에 겸손하게 마주서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의 칼춤을 덩달아 추고 함께 어깨로 장단을 맞추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땐 다들 그랬지 나만 그랬나? 억울한 사람 있겠지만 잊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다. 구속재판도 불법이고, 탄핵도 배신일 뿐이었다. 이래도 되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을 몹시 반대한 사람이다. 왜냐면 정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되어도 힘들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불법으로 억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도 경제가 호황이길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 그러고도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 우리는 먼저 참회부터 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참담한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 하나나 앞을 떠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나 앞으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하였다.

13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멩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멩에들을 만들었느니라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15 ...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시드기야 4년 5월에 일어났다.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통해서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이유는 간단하다.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며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지 어언 70년을 지지고 복고 싸워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나라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실 것을 기도하자. 우리 나라 문제는 우리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마귀의 말이다.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렇게 될 경우에 제대로 된 통일이 불가능하고 핵 있는 자의 갑질만 남을 뿐이다.

현재 우리는 영적전쟁을 하고 있다. 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 영적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승전으로 인해서 노략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